

신림~봉천터널 건설관련 주민피해의 구제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청원 번호	2
----------	---

2014년 9월 2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청 원 자 : 한세희 외 1,358명
- 나. 소개의원 : 이행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 다. 접수일자 : 2014년 8월 14일
- 라. 회부일자 : 2014년 8월 20일
- 마. 상정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4년 9월 23일 상정, 원안가결)

2. 청원요지

- 신림~봉천터널 진출입램프를 현 위치가 아닌 시흥IC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시흥IC에 터널 진출입시설을 설치에 따라 시흥대로와 교통 연계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지하공간에서 시흥대로와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 요지 (소개의원 : 이행자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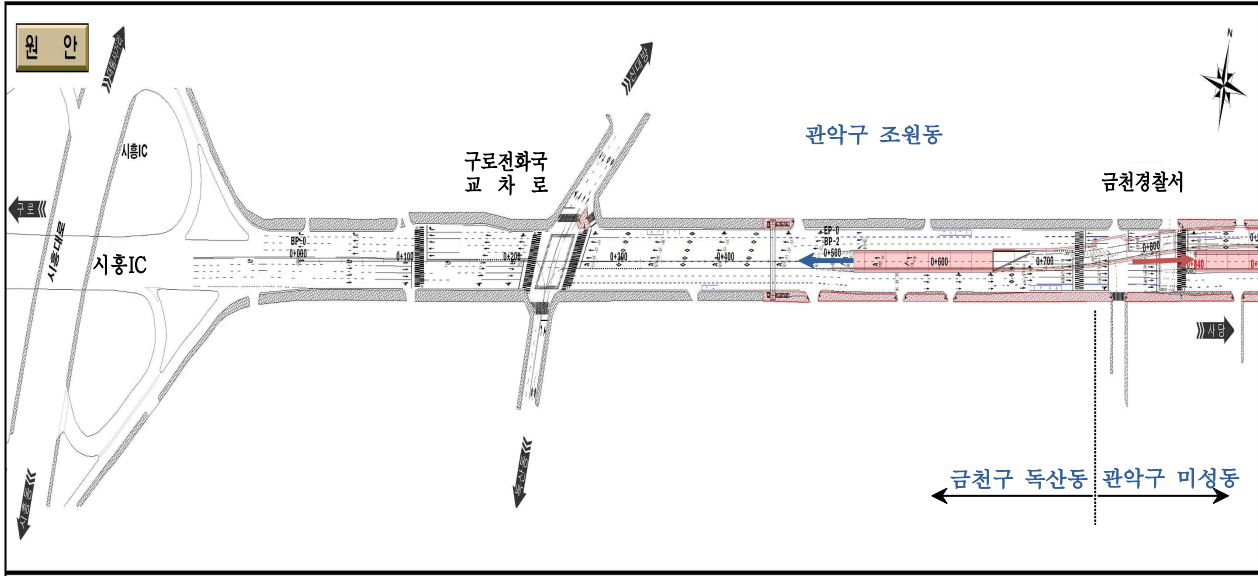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중인 신림~봉천 터널 건설공사(고시 제 2010-116호)는 금천경찰서 앞에 터널 진출입시설 시점부를 건설하고자하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조원동 및 주민들의 단절과 양분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임.
- 또한 당해 지역 상권이 단절되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 올 것이며, 현재도 아파트 은행, 예식장 등으로 복잡한 교통여건이 터널 진출입시설로 인해 더욱 혼잡하게 되어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 할 것임.
- 한편,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횡단보도를 없애고 육교를 설치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는 보행약자의 불편을 초래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함.
- 이에 신림~봉천터널 진출입램프 시점부의 위치는 금천경찰서 앞이 아닌 시흥IC쪽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 되, 조원동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설계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임.

4.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종식)

- 본 청원은 2014년 8월 14일 한사회 외 1,358명이 청원하고 이행자 의원의 소개로 2014년 8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중인 신림~봉천 터널 건설공사의 시점부 진출입램프를 시흥I/C쪽으로 이동하여 설치 할 것과 시흥I/C쪽으로 이

동시 원활한 연결을 위해 지하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임.

<신림~봉천 터널 건설공사 원안>



- 신림~봉천 터널 건설공사는 남부순환로 교통정체해소 및 서남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와의 연계를 위해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반대편 종점부에서 강남터널과 신림·봉천 터널 간 합류부를 연결하는 공사가 진행 중(공정율 0%)으로 2018년 준공예정인 사업임.
- 도시안전실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출구를 이전하는 방안은 도로 구조상 변속차로 길이 및 교차로 정지시거 미확보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진출입램프의 이동은 적절치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¹⁾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설계대로 금천경찰서 앞에 진출입램프가 설치될 경우, 조원동(북측)과 미성동·독산동(남측)과의 단절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조원동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지역경제 및

1)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2014.09.14)

소상인들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의견서 : 별첨

[별 첨]

채택의견서

□ 청원명 : 신림~봉천터널 건설관련 주민피해의 구제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도시안전실)

□ 채택의견

- 동 청원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중인 신림~봉천 터널 건설공사의 시점부 진출입램프를 시흥I/C쪽으로 이동하여 설치 할 것과 시흥 I/C쪽으로 이동시 원활한 연결을 위해 지하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바라는 것임.
- 본 청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장은 출구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로 구조상 변속차로 길이 및 교차로 정지시거 미확보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진출입램프의 이동은 적절치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²⁾.
- 그러나 기존 설계대로 금천경찰서 앞에 진출입램프가 설치될 경우, 조원동(북측)과 미성동·독산동(남측)과의 단절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조원동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들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동 청원을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2)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2014.09.14)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2	접수연월일	2014. 8.14
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11번지	
	성 명	한세희외 1,358명	
소개의원	이 행 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건 명	신림~봉천터널 건설관련 주민피해의 구제에 관한 청원		
소 관 위 원 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림~봉천터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계획대로 남부순환로 금천경찰서앞에 터널 진출입시설을 건설시에는 조원동이 터널 진출입구로 인하여 양분화 될 뿐 아니라, 당해지역 상권이 단절되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 신림~봉천터널 진출입램프를 시흥IC에 설치 또는 지하공간에 시흥대로와 연결하는 방안 강구 요청 			